

1. <ebs 수능특강 15pg-8> 【 Possibility-빈칸추론/제목 】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1999, Two psychologist, Dan kindlon and Micahel Thompson, who wrote together a book entitled *Raising Cain*. The authors argue that America, as a society, has so mishandled the emotional lives of boys that it has produced many distant and troubled men. Fathers and mothers, male and female teachers alike, all unconsciously conspire, the author suggest, to limit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boys. As they put it, we want our boys to be "tough" and "strong" based on images of manliness we absorbed from our culture. So when a child is hurting, when he's sad, angry, frustrated, disappointed, or frightened, we don't allow him to learn about what he's feeling. We push him back inside himself with comments like "Just tough it out" or "You need to be strong." The author contend that we don't teach boys "emotional literacy"-the \_\_\_\_\_. As a result, boys not only lack the ability to express their own feelings, they also fail to recognize emotions in others.

- ① ability to reorganize, interpret, and comprehend emotional experiences
- ② skill which creates boys to express their own mind
- ③ different name of altruism but means itself
- ④ controlling techniques that boys use their emotions to act frantic
- ⑤ shifting system from selflessness to selfishness

**원문-Blunder: Why Smart People Make Bad Decisions-Zachary Shore**

## -정답과 해설-

1.

•해석: 199년도에, 두 심리학자 Dan Kindlon 과 Michael Thompson은 ‘카인 기르기’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한 사회로서 미국이 남아들의 정서적 삶을 너무나 잘못 다루어서 냉담하고 고민에 찬 남성들을 양산해왔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남녀 교사 모두가 무의식중에 남아들의 정서발달을 제한하려고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부터 흡수한 남성적 이미지를 근거로 남아들은 ‘강하고’ ‘힘이 센’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가 상처 받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실망해 있거나 혹은 겁에 질려 있을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참고 이겨내” 혹은 “너는 강해야 한다”와 같은 말로 그를 그의 내부로 다시 밀어 넣는다. 저자들은 우리가 “감정적 판독능력”-감정적인 경험을 재구성, 설명,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을 남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로, 남아들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 ① 감정적인 경험을 재구성, 설명,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
- ② 남아들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능력
- ③ 박애주의의 다른 이름이지만 실제로 그 뜻은 같은
- ④ 광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
- ⑤ 이타주의에서 이기주의로 이동하는 시스템

•해설: 남아의 정서 결핍의 원인이 문화적인 유입으로 인한, 주변인의 압박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의 근거는 10번째 줄의 As a result 이후의 문단으로 찾아 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독능력이 없을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감정을 인식하지 않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고 글에 나오는데, 만약 답을 2번을 선택하였다면 글 내용에서 감정을 인식하지 않는 능력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옳은 정답은 1번, ‘감정적인 경험을 재구성, 설명,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Word to learn:

mishandle-(문제/상황)을 잘못 처리하다 distant-냉담한. 거리가 먼

conspire-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contend-주장하다  
<유의어:content-내용물.(책의)목차

reorganize-재구성하다 comprehend-이해하다

altruism-박애주의 frantic-(두려움/걱정으로)제정신이 아닌  
정신없이 서두르는. 광란의